

三國時代 書誌學의 發展考

金 重 權*

〈목 차〉

- | | |
|---------------|----------------|
| 1. 緒 言 | 3. 書誌學의 發展 |
| 2. 三國時代의 書誌文化 | 3.1 史讀 및 儒家書訓解 |
| 2.1 高句麗 | 3.2 佛書註疏 |
| 2.2 百濟 | 4. 結 言 |
| 2.3 新羅 | Abstract |

I. 緒 言

삼국의 서적문화는 삼국이 성립되면서부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삼국이 전에 이미 고조선이란 2000여년의 역사가 있었으며, 그 역사속에서 많은 문화를 이룩하고 솟한 외국과의 갈등 속에서 문화를 발전시켜 삼국의 문화발전에 토대가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나라의 서적이 언제부터 편찬되었는지 그 시원은 알 수 없지만 기록에 의하면 은나라 태사가 우리나라에 봉해졌을 때부터 서적이 나오기 시작 했다는 설이 있으며, 서적교류도 중국 하나라 때부터 이미 행해졌다¹⁾고 전해오고 있으나 이를 증명할만한 근거가 부족하다. 단지 삼국이전에 서적이 존재했다는 근거로 「고려사」〈열전〉에 인용된 「신지비사神誌秘詞」와 「삼국유사」〈기이紀異 高조선古朝鮮〉조와 〈북부여北扶餘〉조에 「고기古記」가 인용되어 그 편모나마 알 수 있으며, 그밖에 서사문화

* 광주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전임강사

1) 李奎報(1168-1241), 白雲小說. “我東方自殷太師東封文獻始起, 而中間作者, 世遠不可聞
… 三韓自夏時始通中國而文獻蔑蔑無聞”

로는 사마천의 「사기」에 〈맥수麥秀〉와 「고려사」〈志樂〉에 〈서경西京〉과 〈대동강 大同江〉에 관한 시가 기록되어 전하고 있으며, 〈공무도하公無渡河〉라고 하는 〈공후인 筮篋引〉이 「고금주」〈구인공후인〉에 전하고 있다.²⁾ 이와 같이 고조선에도 서사문화가 발전되어 삼국시대의 문화를 전승하는 계기가 된 것이며, 한어로 고구려초기에 「유기」100권이 편찬되었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몇몇 사람들에 의하여 편찬된 것은 아니다. 이는 곧 고조선시기부터 우리 고유의 문자의 발명 아니면 한자의 도입으로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이다. 삼국시대 전후의 문자설은 다양하다. 가림다문자설, 한자의 도입설, 최치원의 이두설 등이 있다. 당시 이러한 문자로 인하여 삼국시대는 정치, 경제, 문화에 초석이 될 수 있었고, 외세의 영향을 받아 그 기반을 다지게 되었음은 물론 유교의 수용이나, 불교, 도교의 사상 등을 수용하면서 차츰차츰 문화의 기반이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삼교의 성행으로 인하여 그에 따른 전도서격인 경전들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문화발전에 많은 영향을 주게되었다. 특히 불교의 성행으로 인하여 당시 많은 유학생 및 학생들이 배출되었으며, 이들은 또한 자신들의 종교에 따라 경전을 저술하고 해석하는 등 훌륭한 업적들을 남겼다. 그러나 아쉽게도 수많은 외침으로 인하여 전적들이 불타버리고 약탈당하는 수모를 겪은 것이다. 당의 군사인 이적(李勣)이 고구려를 정복하고 평양에서 우리나라 서적을 모두 모아 불살라 버렸고, 신라 말에는 견훤이 삼국에 전해진 책들을 완산에서 모두 불살라 버리는 등 이대서화를 겪게 된 것이다.³⁾

이와 같은 서화를 고려·조선시대까지 수 없이 겪게되어 중요한 전적들이 소멸됨으로 인하여 당시의 문화를 확인하는 길은 몇몇의 문헌에만 의존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고는 이들이 남긴 흔적들을 문헌적인 조사를 기초로 하여 삼국시대의 문화를 꽃피우게 했던 유·불·도의 경전 및 외국과의 교류관계 등의 서지문화와 그 토대가 될 수 있었던 주사학과와의 관계를 살펴 당시의 서

2) 李家源 著, 朝鮮文學史. 서울, 太學社, 1995.

3) 靑莊館全書〈紀年兒覽序〉“唐李勣, 既平高句麗, 聚東方書籍於平壤, 其文物不讓中朝, 學以焚之, 新羅之末, 甄萱據完山, 輸置三國之遺書, 及其敗也, 蕩爲灰燼, 此三千年來二大厄也.”

지학 발전상을 고찰하여 보고자한다.

2. 三國時代의 書誌文化

고구려는 삼국중 가장 중국과 밀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까닭으로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면에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여 나라발전의 초석이 될 수 있었다. 정보교류의 한 수단인 문자도 삼국중 가장먼저 도입하여 사용하였으며, 역사서 출판 뿐만아니라 종교계의 서적교류도 아주 활발하였다.

백제 역시 고구려보다는 문자도입이 늦었지만 서적문화에 많은 공적을 남긴 나라였다. 특히 일본에 논어, 천자문 등을 전하는 등 정치, 외교, 경제,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 나라이기도 하다. 신라는 삼국중 문자사용이 가장 늦은 나라이지만 많은 문화적인 업적을 남겼으며, 그로 인하여 고려의 문화기반을 다지는데 초석이 되었던 것은 중요한 사실이다.

이들이 남긴 서적은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고, 자료는 소실되어 없어졌지만 그 흔적이라도 문헌속에 기록되어 전해지고 있는 것도 있다. 본 장에서는 그 동안 삼국이 남겼던 기록을 문헌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각 시대별로 구분하여 서적간행과 서적교류 등의 실상을 밝혀보고자 한다.

2.1 高句麗

고구려는 국초부터(동명왕 원년, B.C. 37년) 문자를 사용하였다는 기록이 있다.⁴⁾ 이는 무엇인가를 기록으로 남겨 후세에 전할려고 하는 욕구가 있었던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러한 문자가 널리 보급되어 일반화 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중앙에는 태학(제17대 小獸林王 2년, 東晉 簡文

4)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孀陽王 11年.

帝 咸安 2年, 372)을 세우고 지방에는 경당(扁堂)을 세워 지방자치체들까지 독서, 활쏘기 등 균등한 교육의 기회를 주었다.⁵⁾ 더우기 역사적인 사실을 남기기 위해 「유기」(留記) 100권을 편찬하기도 하였으며⁶⁾, 후에 이문진이 이를 축약하여 「신집」(新集) 5권을 편찬하기도 하였다. 「삼국사기」권 제20 고구려본기 제8 영양왕조에

“태학박사 이문진이 옛날 역사서를 축약하여 「신집」5권을 만들었다. 국초부터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하여 어떤사람이 국사 100권을 기술하여 서명을 「유기」라 하였던바 이때에 이르러 그것을 수정보완하여 저술하였다.”⁷⁾

는 기록으로 보아 고구려의 역사서가 「유기」 「신집」5권 뿐만아니라 다른 서적도 존재했으리라는 것도 시사해 주고 있으며, 또한 국초부터 역사서 100권을 편찬하였다는 것은 문자가 이미 그 이전부터 사용되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문자를 처음 사용하면서 100권이나 되는 방대한 서적을 집필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이는 이미 그 이전부터 문자가 일반화 되었음을 확증해 주는 근거이기도 하다. 서적교류에 있어서도 고구려는 중국과 이주 활발하였다. 「후주서」(唐太宗 貞觀年簡, 高句麗 榮留王 10년, 627년에 편찬)에 고구려는 서적으로 오경(易, 詩, 書, 禮, 春秋), 삼사(史記, 漢書, 後漢書), 삼국지, 진양추(晉陽秋)가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당시에 이미 중국의 유가의 서적이 고구려에 도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⁸⁾ 또한 「구당서」에

5) 三國史記, 卷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年

6) 留記는 편찬년대가 미상이나 申丑 3年(B.C. 2180) 神誌 고글(高契)이 편찬한 「培達留記」를 말하는지 아니 면 영양왕 이전의 고구려역사를 말하는 지는 확실치 않다. <檀君世記>

7) 三國史記 卷20 高句麗本紀 第8 孀陽王 11年, 春正月

詔大學博士李文眞, 約古史爲新集五卷, 國初始用文字, 時有人記事一百卷, 名曰留記, 至是刪修.

8) 後周書 卷49 列傳 第41 異域上 高麗.

韓致齋 海東繹史 卷42 藝文志1 經籍1 後周書.

“고려국은 그 풍속이 서적을 좋아하여 각 민가에서도 거리에 큰집을 지어 놓고 경당이라 하고 결혼전의 자제들이 밤낮으로 글을 읽고 활쏘기를 연습하였다. 여기에서 읽힌 서적들은 오경 사기 한서 범화후한서 삼국지 손성진춘추 옥편 자통 자림 또는 문선이 있다.”라 하였다.⁹⁾

이 기록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교육도서가 유가경전, 역사서, 문학서 등 다양하게 이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고구려는 유가서적 외에도 불교의 진흥을 위해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가졌으며, 소수림왕 2년(372) 6월에는 전진왕 부견이 순도와 함께 불상과 불경을 가져오기도 하고,¹⁰⁾ 동왕 4년에는 아도가 고구려에 와서¹¹⁾ 순도와 함께 불법을 전도하였다.¹²⁾ 이는 곧 불교를 전도하기 위해 전도서로서 불교의 서적이 필연적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10년후인 고국양왕 1년(東晉 孝武帝 太元9年, 384)에는 동진의 담시가 경(經), 율(律) 수십부를 가지고 고구려영토인 요동으로 가서 널리 전파하였으며,¹³⁾ 평원왕 때는(元年是 陳 武帝 永定 3년, 559) 랑태사가 양에 들어가 용수보살의 저술인 중론 및 12론과 그의 제자 提婆의 저술인 백론 등의 삼론과 또는 화엄경들을 연구하고 삼론종을 개

9)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高麗 “俗愛書籍，至於衡門 養之家，各於街衢造大屋，謂之堂，子弟未婚之前，晝夜於此讀書習射，其書五經，及史記 漢書 范曄後漢書 三國志 孫盛晉春秋 玉篇 字統 字林 又有文選，尤愛重之。”

10)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2年. “秦王苻堅使及浮屠順道，送佛像 經文。”

11)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 第6 小獸林王 4年. “僧阿道來”

12) 三國遺事 卷第3 興法 第3 順道肇麗에서는 「高句麗本紀」에 阿도가 東晉에서 왔다고 하는 것과 「海東高僧傳」에 順도와 阿도가 北魏에서 왔다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하고 그들은 사실 前秦에서 온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13) 金斗鍾은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李能和의 朝鮮佛敎通史 上編 高句麗時代 廣開土王 5年 曇始條를 인용 하여 曇始가 廣開土王 6年(東晉 孝武帝 太元21年, 396)에는 晋에서 經 律 수십부를 가지고 왔다고 하고 있지만 三國遺事 卷第3 興法 第3 阿道基羅條에서 元魏 釋曇始傳을 인용하여 그 曇始가 고구려에 온 년 대를 東晉 孝武帝 太元9(384)년으로 기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元魏釋曇始傳云，始關中人，自出家已後，多有異迹，晉孝武帝 太元(九)年末，賈經律數十部，往遼東宣化，現投三乘，立以歸戒，蓋高麗開道之始也”라 하였다. 또한 여기에서 “遼東으로 가서”라고 했는데 당시에는 이곳이 고구려 영토였음을 시사해 주고 있다.

설하였다고도 한다.¹⁴⁾ 그의 저술로는 「중론소」(中論疏)가 있었다. 또한 영양왕 6년(百濟 威德42년, 595)에는 고구려승 혜자(慧慈)가 일본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같은 해에 귀화한 백제 승 혜충(惠聰)과 함께 일본 불교의 동량(棟梁)이 되었으며,¹⁵⁾ 영양왕 21년(百濟 武王11년, 日本推古 18年, 610)에는 고구려 승 담징(曇徵) 법정(法定)을 보내어 불법을 퍼게하였다. 더우기 담징은 오경(五經)에 능통함을 일본인에게 보여주었다. 그 때 당시 일본은 채색 및 종지와 목을 처음으로 만들고 수력맷돌을 만들었다고 한다¹⁶⁾ 이는 우리나라의 영향이 자못 컸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고구려는 유가나 불교의 관계서 적뿐만 아니라 도교도 도입하면서 그에 관한 서적 역시 입수되었다. 고구려에 도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영류왕 7년(武德 7年, 甲申, 624)이다. 보장왕이 즉위하자 당시 연개소문의 건의로 중국에 요청하여 도사 숙달(叔達) 등 8명과 노자의 「도덕경」을 입수하게 되었다.¹⁷⁾ 도교가 고구려에 도입된 배경을 「삼국유사」의 기록을 통해 알아보면,

“고구려본기에 이르기를, 고구려 말기인 무덕 정관연간에 나라사람들은 다투어 오두미교(후한 말년에 張道陵이 세운 도교로 도능을 따라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五斗의 쌀을 받은데서 비롯된 말)를 신봉했다. 당나라 고조가 이말을 듣고 도사를 시켜 천존상을 보내고 또 「도덕경」을 가지고가서 강론케하여 왕이 백성들과 함께 들으니 곧 제2대 영류왕 즉위 7년 갑신(624)이었다. 이듬해 고구려에서는 당나라 사신을 보내서 불교와 도교를 배울 것을 청하자 황제는 이를 허락하였다. 그뒤 보장왕이 즉위하자(貞觀 16年, 壬寅, 642) 또한 유 불 도를 모두 일으키려 했다. 이때 왕의 사랑을 받던 연개소문이 왕에게 이르기를 ‘지금 유교와 불교는 다같이 성하지만 황관(道教)은 그렇지 못하오니 특별히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어 도교를 구하도록 하십시오’라고 하였으며, 또한 술은 세발이 있고 나라에는 세가지 교가 있

14) 李能和 朝鮮佛敎史 高句麗佛敎의 宗派 三論宗 朗大師(朝鮮史講座, 分類史) 金苐石 高句麗 朗大師와 三論學(白性都 博士 頌壽紀念佛敎學論文集)

15) 日本書紀 卷22 推古 3年 5月條

16) 日本書紀 卷 第22 推古 18年 3월條

17) 三國史記 卷第21 高句麗本紀 第9 寶藏王 2年 3月. “太宗遣道士叔達等八人, 兼賜老子道德經, 王喜, 取僧寺館之.”

는 법입니다. 신이 보기에는 나라안에는 오직 유교, 불교만 있고 도교가 없으므로 나라가 위태로운 것입니다.”¹⁸⁾

라고 연개소문이 건의 하자 왕은 이를 수용하여 당에 요청한 결과 당 태종이 도사 숙달 등 8명과 노자의 「도덕경」 등을 보내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하여 사찰을 도관(道館)으로 만들고 도사를 유사(儒士)위에 앉게 하는 등의 도교를 우대하자 보덕화상 등은 반룡사(平南 龍岡郡에 있는 절)에서 완산주 고대산으로 이주하는 등 불교계 반발이 심하였다. 얼마후 고구려는 망했지만 유·불·도교를 모두 수용하여 국가의 안위를 위해 힘썼으며, 또한 이 삼교로 인해 많은 유가의 서적과 불교서적, 도교서적들이 수입 저술되어 당시의 문화발전에 크나큰 터전이 된 것이다. 고구려에는 이 삼교에 대한 찬(讚)이 「삼국유사」에 전하고 있다.

“불교는 넓어 바다와 같이 끝이 없어,(釋氏汪洋海不窮)
백천의 유교와 도교 모두 조정의 종교이네.(百川儒老盡朝宗)
가소롭다. 저 려왕은 웅덩이를 막고(麗王可笑封沮)
바다로 와룡이 옮겨가는 것 깨닫지 못하네.(不省滄溟徙臥龍)”

고구려의 고승은 보덕법사를 비롯하여 그의 제자 무상화상(無上和尙), 김취(金趣), 적멸(寂滅), 의용(義融), 지수(智叡), 일승(一乘), 심정(心正), 대원(大原), 수정(水淨), 사대(四大), 계육(契育), 개원화상(開原和尙), 명종(明德), 개심(開心), 보명(普明) 등 많은 학승들이 있는데 그들의 저술이 있을 법도 한데 기록에는 보이지 않는다.

의서로는 우리나라 문헌에는 보이지 않으나 「일본서기」에 고구려 평원왕 3

18) 「三國遺事」卷第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高麗本記云, 麗季無德, 貞德開國, 人爭奉五斗米教, 唐高祖聞之. 遣道士, 送天尊像, 來講道德經. 王與國人聽之. 卽第二十七代榮留王卽位七年, 無德七年甲申也. 明年遣使往唐, 求學佛老, 唐帝(謂高祖也)許之. 及寶藏王卽位(貞觀十六年壬寅也)亦欲併興三教. 時龍相蓋蘇文, 說王以儒釋并熾, 而黃冠未盛, 特使於唐求道教. 金奏曰, 鼎有三足, 國有三教, 臣見國中, 唯有儒釋, 無道教, 故國危矣.

년(561)에 중국 강남에 건국한 오나라 사람 지총(知聰)이 내외전, 의서 및 명당도 등 164권을 가지고 고구려로 부터 일본에 귀화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의서가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시초이다.¹⁹⁾ 또한 당나라 때에 편찬된 「외대비요」 4권에 「노사방」이 실려 오늘날 까지 전하고 있다고 한다.²⁰⁾ 이는 곧 고구려 의서가 唐나라에 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밖에 고구려에는 「신지비사(神誌秘詞)」라는 책이 전하고 있었다. 이는 「삼국유사」와 「고려사」에 인용되었으며, 「신지비사」의 서문은 소문 대영홍이 쓰고 또 주석을 달았다고 하고 있다.²¹⁾ 이 「신지비사」라는 책은 삼신께 올리는 옛 제사를 서원하는 글의 내용으로 단군달문 때의 사람 신지 발리(發理)가 저술한 책으로 「태백일사」(소도경전본훈)에 그 편모나마 전하고 있다.²²⁾

19) 김두중은 한국고인쇄기술사에서 日本書紀 欽明主 23年을 인용하였다고 하는 데 일본 서기에는 이와 같은 기사가 없다.

20) 이철화. 조선출판문화사, 백산자료원, 1995. p. 37.

21) 「三國遺事」 卷第3 寶藏奉老 普德移庵

高麗史 卷122, 列傳35 <金祖碑傳>에 천도를 주장하는 상소문을 숙종에게 올리면서 신지 비사를 인용한 내용이 보인다. 신지비사에 이르기를, “비유컨대 저울대 저울추 극기와 같은 것인데 저울대는 扶疎樛이며, 저울추는 五德地요, 극기는 百牙岡이다. 이곳에서 70개 나라의 덕을 입고, 신령의 보호를 받을 것이다. 저울처럼 머리와 꼬리의 자리가 균형해야 나라가 흥하고 태평이 보장된다. 만약 비유해서 말한 이 세곳에 도읍하지 않으면 왕업이 쇠퇴해 질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神誌秘詞曰, 如秤錘極器, 秤幹扶疎樛, 錘者五德地, 極器百牙岡, 朝降七十國, 賴德護神精, 首尾均平位, 輿邦保太平, 若廢三諭地, 王業有衰傾) 라고 기록되어 있다. 「태백일사」(소도경전본훈)에 이에 대한 설명이 보인다. 즉, ‘저울대는 부소량이 다’라고 했으니 곧 천한의 옛서울을 말한다. 역시 곧 단군조선이 도읍한 곳으로서 아사달이 그곳이니, 곧 지금의 송화강의 하르빈이다. 또 ‘저울의 추는 오덕지’라 함은 변한의 옛서울을 말함이니 지금 개평 부 동북 70리에 있는 탐지보가 그곳이다. 또 고려사에 이르기를 ‘저울 그릇은 백야강이라’했으니 이는 마한의 옛 도읍지를 말하며 지금의 대동강이다.(其曰, 秤幹, 扶疎樛者, 是謂辰韓古都, 亦即檀君朝鮮所都阿斯達是也, 亦即今松花江 哈爾濱也. 其曰錘者, 五德地者, 是謂番韓古都, 今開平府東北七十里所在湯池堡是也, 其曰, 極器, 百牙岡者, 是謂馬韓古都今大洞江也) 또한 본 서가 「용비어천가」 제16장에도 인용되었다. 이 내용으로 보아 고조선부터 문자를 사용하여 기록한 신지비사가 고려는 물론이고 조선초에 까지 전해졌음을 알 수 있다.

22) 「太白逸史」(蘇塗經典本訓) “神誌秘詞, 檀君達門時人, 神誌發理所作也. 本三神古祭誓願之文也”

또한 신지라는 말은 고조선시대에 기록을 전담한 관직명이기도 했는데 이사람을 신지선인이라 한다.

이와 같이 고구려는 삼국중 가장 먼저 문자를 사용한 나라로서 함께 역사서 편찬은 물론 유교 불교 도교의 도입으로 중국과도 많은 서적의 교류를 해왔으며, 역사 및 종교서적외에도 지리서, 의서 등을 일본에 까지 전파하는 등 서적문화에 초석을 이루게 된것이다.

3.2 百濟

백제는 역사서로 근초고왕 30년(375)에 박사 고흥(高興)이 「서기」를 편찬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²³⁾, 720년에 완성된 「일본서기」의 인용서에는 「백제기百濟記」 「백제본기百濟本記」 「백제신찬百濟新撰」 등이 인용된 것으로 보아 본 「서기」외에도 백제에는 많은 역사서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백제는 고구려, 신라보다도 가장 먼저 일본과 서적의 교류를 시작하면서 많은 문화적인 교류를 이룬 나라이다. 아신왕 6년(397)에 왜국과 우호관계를 맺은 6년후인 아신왕 13년(403)에 아지기를 일본에 말 2필과 「역경」 「효경」 「논어」 「산해경」등을 전하였으며, 그 이듬해(阿莘王14년, 404)에 왕인이 일본에 가서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다.²⁴⁾ 그리고 백제에는 일찌기 주역, 시, 서, 예기, 춘추 등의 오경박사의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유가경전(儒家經

23) 三國史記, 卷24 百濟本紀 第2 近肖古王 30년에 古記를 인용하여 이르기를 “백제는 개국이래로 문자로 사 실을 기록함이 없었는데, 이 때에 이르러 博士 高興이 비로소 「書記」를 갖게 되었다.”라고 하였다.

24) 金斗鍾은 그의 저서 「韓國古印刷技術史」 p. 33에서 “百濟에 있어서는 近肖古王(346) 및 그의 아들 近仇首 王 때에 阿直岐를 日本에 보내어 易經, 孝經, 論語, 山海經 등을 전하고 그 다음에는 王仁을 보내어 論語와 千字文을 전하게 하였다”라고 했는데 이는 그가 古事記를 참고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필자의 조사 결과 그 시기가 다르다. 712년에 완성된 日本 古事記(中卷)應神條에 의하면 阿直岐를 阿知吉師, 王仁을 和邇吉師라하여 모두 百濟의 照古王(近肖古王)때의 인물로 되어 있고, 和邇吉師는 특히 論語 10卷과 千字文(鍾繇作)을 전하였다고 한다. 이와 같이 古事記에서는 백제

典)들이 필수적으로 들어오게 되었다.²⁵⁾ 또한 「구당서」에 백제국에는 서적에 “오경·자사(子史)와 표소(表疏) 등이 있는데 모두 중국의 법에 의한 것이다.”라 하였다.²⁶⁾ 이는 중국의 유가사상을 받아들이면서 그에 대한 서적들이 필요했을 것이며, 또한 자체적으로 교육 연구에 필요한 많은 번역서도 편찬되었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불서 역시 불교의 수용과 함께 필요불가결한 것이었을 것이다. 백제의 불교는 고구려보다 12년 뒤진 침류왕 원년(東晉 孝武帝 太元9年, 384)에 고승 마라난타가 동진으로 부터 와서 다음 해에 한산(漢山)에 사찰을 창건하였다.²⁷⁾ 성왕 4년(526)에는 겸익법사(謙益法師)가 물(律)를 구하기 위하여 인도에 가서 중인도의 상가야대율사(常伽耶大律師)에서 5년간 법문(梵文)을 배웠으며, 또한 축어(竺語)에 통달하여 깊이 율부(律部)를 연구하고 범승(梵僧) 배달다삼장(陪達多三藏)과 함께 범본 아담장 오부율문(梵本 阿曇藏 五部律文)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 때 성왕은 우보(羽葆)와 고취(鼓吹)로써 환영하고 국내의 명승 28명과 함께 율부 72권을 번역케 하였다. 또한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이 율소(律疏) 36권을 저술하여 드리

에 불교가 도입된 시기를 近肖古王 (346) 때로 보고 있다. 그러나 百濟가 日本과 交流關係를 맺은 시기는 阿莘王 때부터이며, 百濟가 阿直岐와 王仁을 일본에 보내어 일본의 태자를 지도하게한 것도 阿莘王 때이다. 「三國史記」 卷第25 百濟本紀 第3 阿莘王條에 “阿莘王 6년(397) 5월에 왜국과 友好를 맺었다”는 기사가 있는데, 이는 阿莘王 때부터 일본과의 교류가 처음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또한 日本書紀 卷10 應神 15年(百濟 阿莘王13年, 403) 8月條에 의하면, 백제왕이 阿直岐를 보내어 良馬 2필을 전하고 倭太子(菟道稚郎子)의 스승이 되어 經典을 가르쳤으며, 일본의 사신 荒田別과 坐別을 보내와 王仁을 초청하자 그 이듬해(阿莘王14년, 404)에 王仁이 가서 역시 태자의 스승이 되어 모든 典籍을 가르쳐 통달하지 못한 것이 없다고 한다. 따라서 필자의 조사 결과로는 阿莘王 6년(397)에 왜국과 友好關係를 맺은 후 阿莘王13年, 403)에 阿直岐를 일본에 良馬 2필과 倭太子(菟道稚郎子)의 스승이 되어 經典을 가르칠 때 그 과목으로 易經, 孝經, 論語, 山海經등을 다루고, 그 이듬해(阿莘王14년, 404)에 王仁이 일본에 가서 論語와 千字文을 전한 것으로 사료 된다.

25) 金斗鍾 「古印刷技術史」 p. 34

26) 舊唐書 卷199 列傳 第149 東夷傳·高麗·百濟

27) 三國史記 卷25 百濟本紀 第2 枕留王 元年, “胡僧摩羅難陀自晉至, 王迎致宮內禮敬焉, 佛法始於此”

니 성왕 자신이 곤담신율서(毘曇新律序)를 지어 태휘전(台輝殿)에 소장하고 목판에 새겨 널리 보급하려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²⁸⁾ 이는 곧 6세기경부터 우리나라에 이미 목판인쇄술이 일반화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성왕 19년(541)에는 양나라에 사신을 보내 모시박사(毛詩博士)와 열반경(涅槃經) 등의 불경 공장(工匠) 화사(畫師) 등을 청하여 구해 오기도 하였다.²⁹⁾ 동 30년(552)에는 서부희씨, 달솔, 노리사치계 등을 일본에 보내어 석가불, 금동상 1구, 번개, 경론 몇권을 전했으며, 또한 부처 공덕을 찬양하는 글까지 보냈는데 이것이 처음으로 우리나라가 일본에 불교를 전한 근거이다.³⁰⁾

그리고 위덕 24년(日本 敏達 6년, 577)에는 일본사신이 돌아가는 길에 경·론 약간권과 율사·선사·비구니·주금사 조불공 조사공(造寺工) 등 6인을 보냈으며, 동 31년(日本 敏達 13년, 584)에는 왜국사신 목심신(鹿深臣)과 좌백연(佐伯連)이 백제에서 미륵석상 1구와 불상 1구를 일본으로 가져갔으며,³¹⁾

28) 百濟 聖王 4年(梁 普通7年, 526)에 謙益法師가 中印度 常伽那 大律寺에서 留學하여 梵文을 배운지 5년에 竺語를 通達하고 律部를 깊이 연구하여 梵僧倍達多三藏과 함께 梵本, 阿曇藏五部律文을 가지고 本國으로 돌아 와서 국내 명승 28명과 함께 律部 72卷을 번역하고 곧이어 曇旭, 惠仁이 律疏 36卷을 저술하여 왕에게 바치므로 왕이 毘曇新律序를 지어서 台輝展에 奉藏하고 곧 開刊廣佈코자 하였으나 여가를 얻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다는 기사를 이능화의 「朝鮮佛教通史」와 「朝鮮佛教史」에서 彌勒佛先寺 事蹟記를 인용하여 소개한 것을 金斗鍾의 韓國古印刷技術史에서 재인용. (李能和 朝鮮佛教通史 上編 百濟時代: 百濟 聖王 4年(梁 普通7年, 526)百濟 沙門謙益, 入中印度 常伽那寺, 學梵文, 攻律部, 與梵僧倍達多三藏, 齋 梵本律文歸國, 譯成七十二卷 是爲百濟律宗之始, 曇旭, 惠仁兩法師 著律疏三十六卷 「備考」彌勒光佛事蹟云 百濟 聖王 4年 丙午, 沙門謙益, 矢志求律, 航海以轉至中印度常伽那大律寺, 學梵文五載, 同曉竺語, 深攻律部, 莊嚴戒體, 與梵僧倍達多三藏, 齋梵本阿曇藏五律文歸國, 百濟王以羽葆鼓吹郊迎, 安于輿輪寺, 召國內名 釋二十八人, 與謙益法師, 譯律部七十二卷, 是爲百濟律宗之鼻祖也, 於是曇旭 惠仁兩法師 著律疏三十六卷, 獻于王, 王作毘曇新律序, 奉藏于台輝展, 將欲剞劂廣佈, 未遑而薨.)

29) 三國史記, 卷26 百濟本紀 第4 聖王 19年

王遣使入梁朝貢, 兼表請毛詩博士, 涅槃等經義, 并工匠 畫師等, 從之.

30) 日本書記 卷 第19 欽明天皇 13년 “冬十月, 百濟聖明王, 達西部婁氏, 達率, 怒喇斯致契等, 獻釋迦佛金銅像一軀 幡蓋若干 經論若干卷.”

31) 日本書紀 卷20 敏達條

등 35년(日本 崇峻 元年, 588)에는 백제가 사신 및 승 혜총(惠總), 영근(令斤), 혜식(惠寔) 등을 보내어 불사리를 전하고, 은솔(恩率), 수신(首信), 덕솔(德率), 개문(蓋文), 나솔(那率), 복부미신(福富味身) 등에게도 불사리를 전하고, 승 영조율사(聆照律師), 영위(令威), 혜중(惠衆), 혜숙(惠宿), 도엄(道嚴), 영개(令開) 등과 사공(寺工) 태량미태(太良未太), 문고고자(文賈古子), 노반박사(鏞盤博士) 장덕백매순(將德白昧淳)과 와박사(瓦博士) 마내문노(麻奈文奴), 양귀문(陽貴文), 능귀문(儉貴文), 석마제미(昔麻帝彌)와 화공(畫工) 백가(白加)를 보냈으며, 선신니(善信尼) 등 여러명이 백제에 유학하여 계을 배우고 일본에 돌아가서 앵정사(櫻井寺)에 거주하였다.³²⁾ 동 42년(595)에는 백제 승 혜총(惠聰)이 일본에 가서 같은 해에 귀화한 고구려 승 혜자(慧慈)와 함께 일본 불교의 동량(棟梁)이 되었으며,³³⁾ 백제 무왕 3년에(日本推古主 10년, 602)에는 백제승 관록(觀勒)이 천문 지리서 및 둔갑방술서를 가지고 일본에 건너가 그 방술을 학습케 하였다. 「일본서기」 권 제22 추고천황 10년 10월에 “백제의 승 관록이 왔다. 그리고 역서 천문지리의 책과 아울러 둔갑방술의 책을 바쳤다. 이때 서생 3, 4인을 골라 관록에게 학습시켰다, 양호사(陽胡史)의 조상 옥진(玉陳)은 역법을 배우고, 대우촌주(大友村主) 고충(高聰)은 천문 둔갑술을 배웠다. 산배신일립(山背臣日立)은 방술을 배워 모두 업(業)을 이루었다”고 했다.³⁴⁾ 이를 보아 백제는 일본에 불교뿐만 아니라 천문학, 기상학, 의학, 음악 등 많은 문화적인 기술자들이 일본 문화향상에 일익을 담당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무왕 13년(612)에는 백제인 미마지(味摩之)가 일본에 가서 기악무(伎樂舞)를 가르쳤다³⁵⁾고 하는 등의 기사로 보아서 그 당시의 백제에는 경(經)·론(論)·율부(律部) 등의

32) 日本書紀 卷21 崇峻 元年-2年.

33) 日本書紀 卷22 推古 3年 5月條

34) 日本書紀 卷 第22 推古天皇 10年 冬10月に “十年冬十月百濟僧觀勒來之, 仍貢曆本及天文地理書, 并遁甲方術之書也, 是時, 選書生三四人, 以俾學習於觀勒矣. 陽胡史祖玉陳習曆法. 大友村主高聰學天文遁甲. 山背臣日立學方術. 皆學以成業”

35) 日本書紀 卷22 推古 20年 5月條

많은 불경들뿐만 아니라 많은 문화적인 기술자들이 일본에 가서 전수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명한 학승들로는 혜충(惠聰)·담옥(曇旭)·혜인(惠仁)·도장(道藏)·의영(義榮) 등의 활동이 활발했지만 그들의 저술은 거의 전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백제 성왕 31년(일본 흠명주 14년, 662)에 일본에서 의학박사, 역박사(曆博士), 역락사(易博士) 등의 체번(遞番)과 약물 및 복서(卜書), 역서를 청하자,³⁶⁾ 그 이듬해에 의박사, 나줄(奈卒; 6품) 왕유릉타(王有陵陀)와 채약사(採藥師) 시덕(施德; 8품) 번량풍(潘量豐)과 고덕(固德; 9품) 정유타(丁有陀)를 보내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으로 보아 당시의 문헌들이 상당수 전해질법도 하지만 거의 전하고 있지 않다.

백제의 의서로는 「백제신집방」을 들 수 있다. 이 의서는 일본 원용왕(圓融王) 영관(永觀) 2년(高麗 成宗 3年, 984)에 단파강뢰(丹波康賴)가 편찬한 「의심방」과 그의 증손 단파아충(丹波雅忠)이 편찬한 「의략초」에 내용의 일부가 인용되어 전하고 있다.³⁷⁾

이와 같이 백제는 역사, 유교, 불교, 의학, 천문학, 기상학, 역학, 음악 등에 심혈을 기울였으며, 특히 일본에 많은 서적을 전함은 물론 기술자, 학승들을 파견하여 일본문화의 초석이 되게 하였던 것이다.

3.3 新 羅

신라는 한자의 도입이 고구려, 백제보다는 늦었으나 제17대 내물왕 26년(고구려 소수림왕 11년, 東晉 孝武帝 太元 6年, 381)에 전진왕 부견에게 사절과 방물을 보냈으며³⁸⁾, 진흥왕 6년(梁 武帝 大同 11年, 545) 7월에는 이찬

36) 日本書紀 卷 第19 欽明天皇 14年

37) 醫心方 卷15 治肺癰方 第13 “百濟新集方 治肺癰方, 黃耆一斗, 以水三升, 煮取一升分二服”
醫心方 卷16 治丁創方 第1 “百濟新集方 治丁腫毒氣已入心欲困死方”

醫略抄 治丁創方 第2 “百濟新集方云, 取菊葉合莖搗絞取汁三升頓服之.”

38) 三國史記 卷 第3 奈勿尼師今條. “遣衛頭入符秦, 貢方物.”

이사부의 건의로 대아찬, 거칠부 등에 명하여 널리 문사를 구하여 역사서인 국사를 편찬케 하였다.³⁹⁾ 신라의 역사서로는 현재 전하고 있는 서적은 없지만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고기(古記)가 인용되어 그 면모나마 알 수 있다. 삼국사기에는 해동고기(海東古記), 본국고기(本國古記), 삼한고기(三韓古記), 신라고기(新羅古記), 제고기(諸古記) 등으로 다양하게 언급되어 있다. 「동문수東文粹」 권1 <진삼국사기표>에 「고기」에 대해서 “고기는 문장이 무줄(蕪拙)하고 역사가 빠진 곳이 많아 임금의 선악, 국가의 안위, 백성의 치난 등 모두 들어내어 권할 수 없다.”⁴⁰⁾라고 기록되어 약간의 그 편모를 알 수 있다. 위의 기록들로 보아 신라에 역사서가 여러종이 편찬되었음을 입증해 주고 있으며, 또한 이러한 역사서로 인하여 해동국사, 삼국사기, 삼국유사등이 편찬되어 오늘날 까지 전해지고 있음은 참으로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신라의 불교서적은 불교의 도입과 함께 많은 경전을 중국과 교류하게 되었다. 신라의 불교는 눌지왕 때 목호자란 중이 고구려로부터 일선군(지금의 善山)에 도착하자 마을사람 모례란 사람이 자기집에 토굴집을 짓고 모시면서 불교가 싹트게 되었으며, 비처왕 때 아도라고 하는 화상이 부하 3명과 더불어 모례의 집에 와서 경·을을 강독하면서 신자가 생겼다고 한다. 그러나 국가적으로 불교의 숭상은 법흥왕 15년 이차돈의 순교 후에 처음으로 불법을 행하게 되었다.⁴¹⁾ 이는 불교의 수용과 동시에 불교서적들도 수입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진흥왕 10년에는 양나라의 사신과 유학승 각덕(覺德)에게 불사리를 보내니 왕이 흥륜사 앞길에서 이를 맞이하였다.⁴²⁾ 각덕은 신라 유학승의 첫 시발점이었다⁴³⁾는 점에서 불교계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다.

39)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6年 7月. “伊浚異斯夫 奏曰, 國史者, 記君臣之善惡, 示褒貶於萬代, 不有修撰, 後代何觀, 王梁然之, 命大阿浚居柒夫, 廣集文士, 俾之修撰.”

40) 東文粹 卷1 進三國史記表 “又其古記, 文字蕪拙, 事跡闕亡, 是以君后之善惡, 君子之忠邪, 邦業之安危, 人民之理亂, 皆不得發露, 以垂勸戒”

41)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第4 法興王 15年

42)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條.

43) 覺訓 著, 海東高僧傳(高麗 高宗2年, 1215) 卷2 流通之一二 覺德條.

진흥왕 26년(565)에는 진나라로 부터 사신 유사(劉思)와 승 명관(明觀)을 보내 석씨경(釋氏經), 론(論) 1700여권을 보내 왔으며,⁴⁴⁾ 또한 진흥왕 때는 황룡사를 완성하기도 하였다. 황룡사는 진흥왕 14년에 시작하여 동 27년에 완공하였으며, 황룡사 뿐만아니라 祇園寺 實際寺의 2사찰이 준공되기도 하였고, 동 35년에는 황룡사의 장육상(丈六像)을 주성(鑄成)하기도 하는 등 불교가 가장 융성한 시기였다. 동 37년에는 안홍법사(安弘法師)가 수나라에 들어가 호승(胡僧) 비마라(毗摩羅) 등 두 승려와 같이 돌아와 稜伽勝鬘經과 불사리를 가져오기도 하였다.⁴⁵⁾ 진평왕 7년에는 고승 지명(智明)이, 동 11년에는 원광법사가, 동 18년에는 담육(曇育)이 수나라에 가서 불법을 구하기도 하였다.⁴⁶⁾ 또한 선덕왕 5년(貞觀 15년, 641)에는 황룡사에 백고좌를 설치하여 스님 100여명을 모아 「인왕경」을 강독하고⁴⁷⁾, 같은 해에 자장법사가 불법을 공부하러 당에 들어가 동 12년(정관 17년, 643)에 불경과 불상 등을 가지고 왔는데, 「삼국유사」에 의하면 자장법사가 「三藏」400여함을 싣고와서 통도사에 안치하였다고 한다.⁴⁸⁾ 2년후인 선덕왕 14년(650)에는 황룡사 9층탑을 세워 나라의 안녕을 기원하기도 하였다.⁴⁹⁾ 그리고 경덕왕 10년(751)에 불국사 석가탑을 건립한뒤 봉안했다고 하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無垢淨光大陀羅尼經)이 1966년 10월 13일에 발견되기도 하였다. 이는 목판으로 인쇄한 것으로 당시의 인쇄술의 발전상을 알 수 있는 좋은 자료이기도 하다. 흥덕왕(太和 원년, 826)에 입학승인 고구려의 승 구덕(丘德)이 불경 약간권을 가지고 왔으며, 문성왕(文成王) 13년(大中 5년, 851)에 입조사(入朝使) 원홍(元弘)

44)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26年 9月. “陳遣使劉思與僧明觀, 來聘, 送釋氏經論千七百卷”

三國遺事 卷3 塔像第4 前後所將 舍利條

45)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37年. “安弘法師入隋求法, 與胡僧毗摩羅等二僧廻, 上稜伽勝鬘經及佛舍利.”

46) 三國史記 卷 第4 新羅本紀 第4 眞平王

47) 三國史記 卷第5 善德王 5年 “於皇龍寺, 設百高座, 集僧, 講仁王經, 許度僧一百人.”

48)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前後所將 舍利條

49) 三國史記 卷 第5 新羅本紀 第5 善德王

이 불경 약간축을 가져왔으며, 신라말에는 보요선사(普耀禪師)가 두 번이나 오월(吳越)에 가서 藏經을 가져왔다. 또 天成 3년(928)에 묵화상(默和尚)이 당나라에 들어가 대장경을 가지고 왔다.⁵⁰⁾ 이와 같이 신라는 불교의 성행과 아울러 불교에 관한 많은 서적을 도입함과 아울러 불경에 의한 학술활동도 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신라의 유가경전의 교류는 교육기관인 국학이 설립되면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였다. 신라의 교육기관은 신문왕 2년(唐 高宗 永淳 元年, 682)에 예부의 소속으로 국학이 처음으로 설립되었다. 당시 교육과목으로는 주역·상서·모시·예기·춘추좌씨전·문선·논어·효경 등으로 박사와 조교 1인이 예기·주역·논어·효경을 혹은 춘추좌씨전·모시·논어·효경을 혹은 상서·논어·효경·문선으로 삼분과(三分科)하여 가르쳤다.⁵¹⁾ 이는 모두 유가의 서적인 논어·효경을 국학의 필수과목으로 개설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당의 국자감에서는 예기 좌전을 대경으로 모시·주례·의례를 중경으로 주역·상서·공양전·곡양전을 소경으로 하는 삼분과제도를 두었다.⁵²⁾ 또한 신라는 원성왕 4년(唐 德宗 貞元 4년, 788)에 독서삼품과(讀書三品科)를 두어 학문의 길을 넓혔다. 그 과목으로는 춘추좌씨전·예기·문선·논어·효경·곡례·오경·삼사(사기, 한서, 후한서) 및 제자 백가서·산학등이었다. 여기에서 삼품자는 춘추좌씨전·예기·문선을 읽어 그 뜻을 잘통하고 논어·효경에 밝은자로 하였으며, 중품자는 곡례·논어·효경을 읽은자, 하품자는 곡례·효경을 읽은자로 하였으며, 이에 오경 삼사와 제자 백가서에도 능통하면 특별히 등용하는 제도를 두었으며, 산학박사와 조교 1인에게 철경(綴經)·삼개(三開)·구장(九章)·육장(六章)을 가르치도록 하였다.⁵³⁾ 동 열전 강수전에는 유학의 교과서

50) 三國遺事 卷3 塔像 第4 前後所將 舍利條

51) 三國史記 卷第28 雜誌 第7 職官志上

52) 唐六典 卷4 禮部尙書條

53) 三國史記 卷第38 雜誌 第7 職官 上, “國學, 屬禮部, 神文王二年置, 景德王改爲大學監, 惠恭王復故, 卿一人, 景德王改爲司業, 惠恭王復稱卿, 位與他卿同, 博士(若干人, 數不定), 助教(若干人, 數不定), 大舍二人, 眞德王五年置, 景德王改爲主簿, 惠恭王復稱大

로 효경·곡례·이아·문선 등을 들고 있어서 수 당의 유경(儒經)·사서(史書)·자서(字書) 및 제자 백가서들이 당시 널리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⁵⁴⁾

이와 같이 신라는 유가서적을 교육과목으로 채택하여 귀족자제들을 대상으로 교육하여 등용의 길을 열어 주게된 것이다. 경덕왕 때 국학에 박사와 조교제도를 두었으며, 또한 도서를 관장하는 부서인 채전(彩典)을 두기도 하였다.⁵⁵⁾ 더우기 신문왕은 사신을 당에 보내 「예기」와 문장에 관한 책을 청하자 唐則天이 관리에게吉凶要禮를 등사하고 文館詞林중에서 規誡에 관한 글을 선택하여 50권을 보내왔다.⁵⁶⁾ 해공왕 원년에는 왕이 대학에 가서 박사로 하여금 「상서」를 강의하게 하는 등 유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고,⁵⁷⁾ 경문왕 3년(863)에는 국학에 가서 박사들에게 경의(經義)를 강론케 하고 상을 내렸으며,⁵⁸⁾ 헌강왕 5년(879)에도 왕이 친히 국학에 가서 박사들에게 강론케 하였다.⁵⁹⁾ 경문왕 9년(872)에는 학생 李同 등 3명을 진봉사 金胤(金胤)을 수행케 하여 당에서 학업을 닦게 하고 책을 사오는 요금으로 은 300냥을 주기도 하였는데,⁶⁰⁾ 이는 국가에서 국비로 책을 사오게 한 것으로 우리나라 도서무역

舍, 位自舍知至奈麻爲之, 史二人, 惠恭王元年加二人, 教授之法以周易 尚書 毛詩 禮記 春秋左氏傳 文選, 分而爲之業, 博士若助教一人, 或以禮記 周易 論語 孝經, 或以春秋 左氏傳 毛詩 論語 孝經, 或以尚書 論語 孝經 文選教授之, 諸生讀書, 以三品出身, 春秋左氏傳, 若禮記, 若 文選, 而能通其義, 兼明論語 孝經者爲上, 讀曲禮 論語 孝經者爲中, 讀曲禮 孝經者爲下, 若能兼通五經 三史 諸子百家書者, 超擢用之, 或差算學博士若助教一人, 以綴經三開九章六章教授之, 凡學生, 位自大舍已下 至無位, 年自十五至三十皆充之, 限九年, 若朴魯不化者罷之, 若才器可成而未熟者, 雖踰九年許在學, 位至大奈麻 奈麻, 而後出學.”

54) 三國史記 卷第46 列傳 第6 強首, 崔致遠, 薛聰

55)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景德王條

56) 三國史記 卷第8 新羅本紀 第8 神文王 6년 “遣使人唐, 奏請禮記并文章, 則天令所司, 寫吉凶要禮, 并於文館 詞林, 採其詞涉規誡者, 勒成五十卷賜之”

唐書 <新羅傳>에는 唐禮 및 文辭를 청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57) 三國史記 卷第9 新羅本紀 第9 惠恭王 “幸太學, 命博士講尚書義”

58) 三國史記 新羅本紀 景文王 “三年春二月, 王幸國學, 命博士已下, 講論經義, 賜物有差”

59) 三國史記 新羅本紀 憲康王 “十五年春二月, 幸國學, 命博士已下講論”

60) 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景文王 9年 “遣學生李同等三人, 隨進奉使金胤, 入唐習業, 仍賜買書銀三百兩”

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신라는 왕이 친히 국학에 가서 강론을 듣기도 하고 유학생을 당에 보내어 수업을 받게 하고 수업을 마친후에 서적을 사오도록 책값을 주는 등 문학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

당시는 국왕 뿐만아니라 귀족들까지도 유가서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많은 독서를 해왔던 것이다.

병사에 관한 서적으로는 원성왕 2년(786) 大舍 武烏가 「병법」 15권과 「화령도花鈴圖」 2권을 바친 것이 처음이다.⁶¹⁾ 법률, 행정서로는 지증왕(智證王) 5년(504)에 상복법을 제정하고, 태종 무열왕 원년(654)에는 종전의 물령을 재정하여 「이방부격 理方府格」 60여조를 수정하였다.⁶²⁾ 또한 국내의 토지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위하여 「장적藏籍」을 작성하였다. 장적은 토지, 인구, 특산물 등을 기록한 통계자료의 하나이다.

신라의 과학기술로는 7세기전반에 첨성대를 설립하여 기상학과 천문학발전에 기여했으며, 또한 이를 관측하기 위한 수단으로 수확도 발전하여 산학박사제도도 두었으며, 성덕왕 17년에는 물시계를 만들어 시간을 알게 하는 등 과학기술에 많은 업적을 남겼다.⁶³⁾ 가사문학으로는 혜성가를 비롯하여 많은 향가들이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전하고 있다.

신라의 인쇄술로는 전술한 바와같이 불국사석가탑에서 발견된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을 비롯하여 18세기 서유구의 저서 「누판고」(대장경조)에서 “옛날 신라 애장왕(800-809) 때에 새긴 것이라 한다”⁶⁴⁾고 했으며, 한치윤의 「해동역사」에서 대장경에 대하여 “옛 기록에는 신라 애장왕 정묘년에 새겼다”고 하였다. 문성왕 때에도 새겼다는 기록이 「팔만대장경개간인유」에 보인다. 이러한 기록들로 보아 우리나라의 인쇄술은 이미 8세기부터 본격화 되었음을 알 수 있다.

61) 三國史記 卷10 新羅本紀 第10 元聖王 2年 “大舍武烏獻兵法十五卷 花鈴圖二卷, 授以屈押縣令”

62) 三國史記 卷4 新羅本紀5 太宗武烈王 元年 5月條.

63) 三國遺事 卷第8 新羅本紀 第8 聖德王 17年

64) 鑲板考 卷第5 子部下 釋家類 大藏經(條) “舊傳新羅哀莊王時刻”

당시 석학들로는 강수(強首), 최치원(崔致遠), 설총(薛聰), 김대문(金大問), 대구화상(大炬和尚), 최승우(崔承祐), 혜초(慧超) 등으로 멀리 당에 까지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들의 업적을 보면 강수는 외교문서를 담당하였으며, 최치원은 「제왕년대력(帝王年代曆)」이 있으며, 삼국사기 권46 열전 최치원조에서는 「신당서」(예문지(別集類))를 인용하여 그의 저서로 「사록집四六集」1권 「계원필경(桂苑筆耕)」20권을 저술하였다고 하고 있다. 그밖에 최치원의 저술로 문집 30권이 있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있다. 단지 삼국 및 후기신라, 발해에 관한 서한문 1편이 「삼국사기」에 전하고 있으며, 기타 시, 산문들이 「동문선」 「동국여지승람」 「대동운부군옥」 등에 수록되어 전하고 있다. 그 밖의 작품으로는 「사시금체부私試今體賦」 5백수 1권, 「오언칠언금체시五言七言今體詩」 1백부 1권, 「雜詩賦」 30수 1권, 「中山覆集」 1부 5권, 「계원필경(桂苑筆耕集)」 1부 20권, 「수이전殊異傳」 5종은 그가 「계원필경집」 서문에 밝혔고, 「수이전」은 전하지 않고 있다. 비문으로는 <쌍계사진감도사대공탑비>와 <경주사광혜화상백월보광탑비>가 현재까지 남아 있으며 「현수전」 「부석존자전」 등이 의천의 총록에 수록되어 있다. 또한 그는 탄남비서(鸞郎碑序)를 썼으며,⁶⁵⁾ 진성왕 8년(894)에는 <시무책(時務策)>10여조를 써서 왕에게 바치기도 하였다.⁶⁶⁾ 최치원의 저술중 「제왕년대력」은 「삼국유사」 권제1 제2대 남해왕조에 인용되기도 하였다. 설총은 「삼국사기」 설총조에 「화왕계(花王戒)」가 전해지고 있다. 김대문의 저술로는 「고승전(高僧傳)」 「화랑세기(花郎世紀)」 「계림잡전(鷄林雜傳)」⁶⁷⁾ 「악본(樂本)」 「한산기(漢山記)」⁶⁸⁾ 등과 傳記若干卷을 저술하였다고 하나 전하지 않고 있다. 서명에서 보여주듯 「고승전」은 당시의 유명한 고승들의 업적을

65) 三國史記 卷第4 新羅本紀 第4 眞興王.

鸞郎碑序 내용에는 崔致遠이 당시 인용한 「仙史」라는 책이 있다. 이 책을 이병도 선생은 金大問의 花郎 世記로 보았지만 확실치 않다.

66) 三國史記 卷第11 新羅本紀 第11 眞聖王 8年

67) 「靑莊館全書」〈像業記東國史〉“鷄林雜傳, 新羅 金大問著, 不傳”

68) 李家源 先生은 「樂本」과 「漢山記」를 「樂本漢山記」로 보고 이 책은 한산주 향악을 기록한 것으로 보고 있다. (「朝鮮文學史, 上冊. 一서울: 태학사, 1995. p. 159)

소개한 내용이며, 「화랑세기」는 신라 화랑들의 약력을 소개한 내용이고, 「鷄林雜傳」은 신라에서 있었던 여러가지의 일들을 소개하는 글이며, 특히 이 책은 「삼국사기」 권4 법흥왕조에 인용되어 이차돈에 관한 기사를 전하고 있다. 「악본」은 음악에 관한 내용이고, 「한산기」는 저자 자신이 성덕왕 33년(704)에 한산주에서 도독(都督)으로 근무할 당시 그 지역의 풍습이나 문화적인 배경을 다루었을 것으로 보인다.

대구(大矩) 화상은 진성왕 2년(808)에 왕명에 의하여 향가를 수집하여 「삼대목三代目」을 엮었다.⁶⁹⁾ 최승우는 진성왕 3년(889)에 당나라에 유학하여 급제한 후 귀국하였으며, 「사육체四六體」 5권이 있었는데 스스로 서문을 지어 「호본집 本集」이라 하였다.⁷⁰⁾ 이 책은 전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 일부가 「동문선」에 실려 전하고 있다. 혜초의 작품으로는 「왕오천축국전往五天竺國傳」으로 그가 비단길을 따라 오천축을 여행하며 듣고 보고 느낀바를 기록한 우리나라 최초의 기행문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의 의서로는 현전하는 책은 없지만 「신라법사방」 「신리법사유관비밀요술방」 「신라법사비밀방」의 서명 및 내용이 일본의서인 「의십방」에 인용되어 당시의 의서가 존재해 있었다는 것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다.⁷¹⁾ 단지 이 세책이 모두 서명이 비슷하여 한책을 의미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이상으로 신라는 초기에 고구려·신라보다 문화적인 면이 뒤떨어졌지만 삼국통일후 급격한 발전을 보였던 것이다. 따라서 훌륭한 인재들도 많이 배출하여 오늘날 까지 그들의 작품들이 소수나마 전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69) 「三國史記」〈新羅本紀〉眞聖王 “二年春二月，少梁里石自行，王素與角干 魏弘通，至是常入內用事，仍命大矩和尚，修集鄉歌，謂之三代目 云”

70) 「三國史記」〈列傳〉薛聰條 “崔承祐，以唐昭宗 龍紀二年入唐，至景福二年，侍郎楊涉下及第，有四六五卷，自序爲 本集”

71) 醫心方 卷2 服藥用意 條와 卷10 治積聚方 第1에 「新羅法師方」, 同書 卷28 房內用藥石 第26에 「新羅法師流觀秘密要術方」과 「新羅法師秘密方」이 인용되어 있다.

3. 三國時代 書誌學의 發展

앞장에서 밝혔듯이 삼국시대는 유·불·도교인 3교가 병존한 시기였다. 이러한 3교의 수용과 아울러 그에 따른 교리와 이론들에 관한 전적들도 많아 질 수 밖에 없었다. 유가의 경우는 주로 중국의 국가감에 유학한 유학생들에 의하여 많은 유가서들이 보급되고, 또한 불서는 유학생들에 의하여 보급되었다. 도가서 역시 중국에서 도입하여 민간에게 까지 널리 보급되어 사용되어 왔다. 더우기 고구려의 경우는 나라말에 연개소문으로 인하여 기존의 유·불교 보다 도교를 더 숭상하는 계기가 있었다. 즉, 고구려말에 사찰을 폐하여 도장으로 만들고 도가들을 제일 윗자리에 앉게 하는등 도교 우위의 정책을 펴기도 하자 이로 인해 승려들의 반발을 사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三敎가 발전하자 그에 따른 많은 전적들을 도입하게 되었지만 이러한 전적들은 거의 범어나 한자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이 많았다. 더우기 통일신라의 경우는 국가의 종교로 불교가 가장 융성하던 시기였으므로 불경에 관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범어에 익숙한 학생들은 쉬운 우리의 글로 해석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어려운 문장에는 주와 소를 달아 이해를 도와왔다. 물론 목적은 각 종교마다 자신들의 진리를 널리 보급하는데 있었고 또한 국가의 안녕을 위해 정책적으로 시도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경전을 쉽게 해석하고 어구 및 문장마다 주와 소를 다는 학문을 '주소학'이라고 한다. 주소를 달기 위해서는 더욱 원문에 치중하게 되고 그에 따라서 원전의 사료를 구하여 깊이 고증하고 그 내용을 분석하고 평가를 해야 만이 올바른 경전의 주소가 이루어 지게 된다. 이는 곧 오늘날 서지학을 발전 시키는 토대가 된 것이다. 따라서 본장에서는 신라시대에 중점을 두고 문헌적인 조사를 토대로 유가서와 불서의 주석을 중심으로 검토하여 서지학의 발전상황을 고찰하여 보고자 한다.

3.1 吏讀 및 儒家書의 訓解

당시 신라는 삼국통일 후 가장 시급한 것이 언어와 문자의 통합이었을 것이다. 통일이전에는 각각 분열되어 언어소통에도 문제가 많았으며, 또한 문자의 도입시기도 맞지않아 나름대로의 문자를 만들어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예를 든다면, 앞으로 연구의 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가림다문자든지 이두 등이 한예라고 할 수 있다. 가림다문자를 사용하면서 한자를 받아 들여 병행하여 사용하다가 우리의 사상, 감정을 전달하는데 불편한 점이 많았을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점을 보완하여 만든 것이 바로 설총(薛聰)의 이두(吏讀)이다. 결국 설총은 한자를 우리 실정에 맞도록 변형하여 문자를 사용하기 시작한 것이 바로 이두이다. 이두를 사용하여 유가경전들을 혼해하기도 하고 정부에서는 문서를 이두로 사용하여 널리 통용되도록 하였다. 설총에 대한 기사로는 「삼국사기」에 “설총은 성품이 밝고 날카로워 태어나면서 도를 알았으며, 특히 방언으로 구경(九經)을 읽어 후학들을 가르쳤으므로 지금까지 학자들의 종지가 되었다.”⁷²⁾고 하였으며, 「삼국유사」에도 “설총은 태어나면서 영민하였고 경사에 박식하여 신라 10현중의 한 사람이다. 방음으로써 중국과 신라의 풍속과 문물을 해석하였으며, 육경과 문학서를 혼해하였으므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명경을 수학하고자 하는자가 끊임없이 전수하고 있다.”⁷³⁾라고 하여 방언을 이용하여 구경을 혼해하였다고 했는데, 여기서 방언을 이두라고 하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유가서 및 문학서를 이해하기 쉽도록 해석하여 모든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두는 한자의 음이나 뜻을 빌어 기록하는 방법으로 신라 진평왕 때(579-632)의 彗星歌는 이러한 표기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에 관한 명칭도 다양하

72) 「三國史記」卷46 列傳 第6 薛聰條에 “聰性明說 生知道術 以方言讀九經 訓導後生 至今學者宗之”

73)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元曉不羈(條) “聰生而睿敏, 博通經史, 新羅十賢中一也, 以方言通會華夷方俗物名, 訓解六經文學, 至今海東業明者, 傳受不絕”

다. 향찰(鄉札), 이도(吏道), 이두(吏頭), 이토(吏吐), 이투(吏套) 등으로 그 명칭이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균여전(均如傳)에 이두를 향찰,⁷⁴⁾ 「제왕운기帝王韻紀」 신라조에는 이서(吏書)라 하였고, 「대명률직해大明律直解」에 와서 이두라 하였다. 이도(吏道)란 말은 조선조 태조 4년(1395)에 간행된 「대명률직해」金祗의 발문에서 보인다.⁷⁵⁾ 이두(吏讀)란 말은 세종 26년 최만리의 훈민정음 제정 반대 상소문과 세종 28년 정인지의 훈민정음 서문, 어숙권의 「폐관잡기裨官雜記」 이의봉의 「고금석림古今釋林」,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등에는 吏讀라 기록하고 있다. 이두(吏頭)는 이두문의 문례집인 「유서필지儒胥必知」의 부록인 이두휘편(吏頭彙編)에서 이두(吏頭)라고 표기하고 있다. 그밖에 「동경잡기東京雜記」〈人物〉조에 “又以俚語製吏札, 行於官府”라하여 ‘吏札’로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吏讀에서 ‘吏’는 아전, 서리 등 문서를 다루는 사람을 지칭하는 뜻으로 주로 관리들이 문서를 작성할 때 사용되는 문자이다. 그러므로 이두에 관한 지식은 공직에 진출한 관리들에게 필요했을 것이며, 실무자로서 문서를 담당한 아전, 서리계층에 있어서는 그 필요가 더욱 절실하였을 것이다. 문서를 잘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문을 알아야 했을 것이다. 그래서 학습하기 위한 교재가 나오기도 하였다. 「유서필지」 「이문집례」 「이두편람」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문서를 작성하기 위한 대용뿐만 아니라 일반 책을 집필하는데도 널리 사용되었다. 태조 15년(1415)년에 간행한 「양잠경험찰요養蠶經驗撮要」⁷⁶⁾가 그 일면을 보여주고 있다. 삼국시대 이두에 관한 자료로는 상원사종기(上院寺鍾記: 江原道 平昌郡, 聖德王 24년), 갈항사석탑비(葛項寺石塔記: 慶

74) 鄉札이란 말은 1075년의 「均如傳」 行狀十門中 第八門 譯歌功德分の 崔行歸序文에, 我邦之才名公解吟唐什彼土之鴻儒碩德莫解鄉語矧復唐文如帝網交羅我邦易讀鄉札似梵書連布彼土難傷 이란 글에서 鄉札이라 한 것으로 보아 吏讀의 別稱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75) 「大明律直解」 金祗의 跋文에 “本朝三韓時, 薛聰所製方言文字, 謂之吏道土俗生知習熟, 未能遽革焉, 得家到戶諭, 每人而教之哉, 宜將是書讀之以吏道導之以良能” 하여 吏讀을 吏道로 표현하였다.

76) 중국 원나라의 「農桑輯要」를 吏讀로 번역한 蠶書로 世宗 11年(1429)에 간행된 「農事直說」보다 10여년이나 먼저 간행된 현존하는 최고의 農書이다.

北 金泉郡, 元聖王), 연지사종기(蓮池寺鍾記; 慶南 晋州, 興德王 8年), 조선 종기(朝鮮鍾記; 在日本, 孝恭王 8年, 景德王 4년), 「삼국유사」 향가 14수와 「균여전」의 보현십원가 11수, 「삼국사기」 인명, 관직명, 지리지의 지명, 「삼국유사」의 인명, 지명 등이 현전하고 있다.⁷⁷⁾

이와 같이 삼국시대부터 우리문자를 만들려는 노력으로 한자에서 음과 뜻을 빌어 이두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는 도구로 삼아왔음은 학계에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따라서 삼국시대이전부터 우리나라는 고유의 문자를 사용하여 원전의 이해를 도왔으며, 또한 한자의 도입과 우리실정에 맞는 문자를 만들어 문화발전에 기여한 것이다. 이 밖에 신라는 이두를 사용하지 않고 한자를 우리말 어순에 맞추어 배열하여 어려운 문장을 쉽게 해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즉, 1940년 5월 경주군 견곡면 금장리 석장사 뒤 언덕에서 발견한 입신서서기는 두 친구가 함께 맹세한 내용으로 한문이 우리말 어순으로 되어 있어 당시의 한문을 우리문자화하여 통용했음을 알 수 있고 또한 시경, 상서, 서경 등을 율독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귀족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경전이 널리 읽혀졌던 것으로 입증할 수 있다.⁷⁸⁾ 이것은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면서 당시

77) 고려시대의 이두에 관한자료로는 境淸禪院慈寂禪師凌雲塔碑(慶北 榮州郡 太祖 24년), 通度寺國長生石標(慶北 梁山郡 宣宗 2년), 武安里國長生石標(慶南 密陽郡 宣宗 2年), 淨兜寺石塔碑(慶南 金泉郡 顯宗 22年) 등 있으며, 조선시대의 자료는 大明律直解(太祖 4年), 慶尚道地理志(世宗 6年), 紹修書院曆錄(仁宗), 亂中雜錄(宣祖 26年), 壬辰狀草(宣祖朝), 軍門曆錄(宣祖 28-29年), 光海君日記(仁祖 2年), 滄陽狀啓(仁祖 13-21年), 農圃集(英祖 24年), 海行摺載, 臺山遺集(高宗), 禁啓曆錄(義禁府, 肅宗 26年), 推案及拘案(義禁府, 宣祖 34-高宗 29年), 左右捕盜廳曆錄(捕盜廳, 高宗), 左捕盜廳曆錄(捕盜廳, 純祖 7年-高宗 21年), 右捕盜廳曆錄(捕盜廳, 純祖 7年), 土地賣買文記 등이 있다. 단행본으로는 大明律直解(太祖 4年, 1395), 養蠶經驗撮要(太宗 15년, 1415), 吏文例(편자, 년대 미상), 儒胥必知, 新式儒胥必知(光武 5年, 1901년, 懷村子撰), 典律通補初稿本(英祖 37, 1761년, 具允明撰), 典律通補修正本(正祖 10, 1786, 具允明撰), 羅麗吏讀(正祖 13, 1789, 李義鳳撰 「古今釋林」中), 吏讀便覽(純祖 29, 1829), 才物譜 轉寫本の 吏讀, 語錄辨證說附錄(憲宗朝 李圭景의 「五洲衍文長箋叢稿 卷48), 諺解語錄總覽의 吏文語錄, 吏文大師, 吏文(孝宗 9年, 1658) 등이 있다.

78) 壬申誓石記 “壬申年六月十六日, 二人并誓記, 天前誓, 今自三年以後, 忠道執持, 過失无誓, 若此事失, 天大罪得誓, 若國不安大亂世, 可容行誓之, 又別先辛未年七月二十二日, 大誓, 詩尙書禮傳倫得誓三年”

의 국민들이 좀더 쉽게 글 뜻을 이해시키려고 했다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이두문자나 한자의 우리말순 배열은 모든 연구자나 학습자에게 정확하고 올바른 정보를 교환하는데 목적을 두고 발전시킨 것으로 보아 서지학의 토대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3.2 佛書의 註釋

전기한 바와 같이 고구려에서는 蘇文 大英弘이 「神誌秘詞」의 序文을 쓰고 또 注를 달았다⁷⁹⁾는 것과 학승 승량이 「주대반열반경」 72권을 주석하였다는 것과⁸⁰⁾ 성왕 4년(526)에 겸익법사(謙益法師)가 律를 구하기 위하여 인도에 가서 중인도(中印度)의 상가야대율사(常伽耶大律寺)에서 5년간 범문(梵文)을 배웠으며, 또한 축어(竺語)에 통달하여 깊이 율부를 연구하고 범승(梵僧) 배달다삼장(陪達多三藏)과 함께 범본아담장오부율문(梵本阿曇藏五部律文)을 가지고 돌아와서 국내 명승 28명과 함께 율부 72권을 번역하고 또한 담욱(曇旭)과 혜인(惠仁)이 율소(律疏) 36권을 저술하였다⁸¹⁾는 것은 주소학 및 서지학의 발전계기가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주소학의 토대위에 서지학이 가장 발전하게 된 것은 7세기 이후부터이다.⁸²⁾ 당시 경전의 주소를 발전시킨

79) 「三國遺事」 卷第3 寶藏奉老 普德移庵條

80) 續高僧傳

81) 彌勒光佛事蹟

82) 중국의 경우 불경의 번역이 2세기부터 시작해서 3세기에 번역본의 수량이 증가되었으며, 승 竺法虎가 번역한 불경이 149종이라 한다. 수나라 (A.D. 581-618)가 통일한 뒤 불경의 번역이 최고에 이르렀다. 서기 581년 수 문제는 불경을 초록하여 각 사찰에 보관하게 하고 별도로 抄本을 만들어 秘閣에 보관하도록 했다. 문제 때 베껴쓴 불경이 13만권에 이르렀으며, 606년 煬帝가 東都에 도읍을 정하고 전문번역관을 두도록 하였다. 「수서」(경적지)의 기록은 당시의 전적을 모두 망라하고 있다. 도가의 경전이 377종 1216권, 불경이 195종 6198권이다. 이와 같이 중국에서는 수나라 때(581-618) 불경번역이 가장 성황을 이루게 되었음을 볼 때 우리나라에서도 이 시기에 불경번역 작업이 가장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학승들로는 진평왕 때의 고승 지명(智明), 담육(曇育), 원광법사(圓光法師) 등이 학승으로 유명하지만 그들의 저술은 거의 전하지 않고 있다. 다만 지명의 저술로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반야심경집해般若心經集解」 4권, 「반야심경과般若心經科」 1권, 「사분율갈마기四分律 磨記」 1권이 기재되어 있고, 원광법사는 진평왕 당시 유학승으로 유교경전 뿐만아니라 불경에 능통하여 국왕의 신임을 받았으며, 또한 왕의 부탁으로 수나라 병사를 청하는 ‘걸사표(乞師表)’를 작성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에 관한 전기는 고승전이나 삼국유사에 실려 전하고 있을 뿐 그의 저술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제자들을 많이 가르쳐 그에 관련된 주소의 관련서적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효, 의상, 의적, 경홍, 현일, 순경, 오신, 지통, 연기, 태현, 원축, 원승, 둔륜 등 많은 학승들이 배출되어 그들의 작품들이 오늘날까지 일부나마 전하고 있다. 이들이 주소를 달아 저술한 경전들을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을 대상으로 표화 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三國時代의 註疏經典

저자	서명	저자	서명
智明	般若心經集解 4卷	義湘	法界圖 1卷
	般若心經科 1卷		十門看法觀 1卷
	四分律-i磨記 1卷		入法界品 記 1卷
慈藏	四分律-i磨私記 1卷		小阿彌陀經義記 1卷
	十門看法觀 1卷	元曉	中邊論疏 4卷
圓勝	梵網經記 1卷		掌珍論宗要 1卷
	四分律木叉記 1卷		廣百論宗要 1卷
	四分律-i磨記 2卷		三論宗要 1卷
圓測	仁王經疏 3卷		十門和諍論 2卷
	般若心經科 1卷		二諦章 1卷
	解深密經疏 7卷		調伏我心論 1卷
	成唯識論疏 20卷		安身事心論 1卷
	成唯識論別章 3卷		求道譬喻論 1卷
	百法論疏 1卷		初章 1卷

저자	서명	저자	서명
元曉	華嚴經疏 10卷	憬興	大涅槃經疏 14卷 후 7卷
	華嚴經宗要 10卷		法華經疏 16卷 후 8卷
	大華嚴經一十章 1卷		金光明經述贊 7卷
	華嚴經大乘觀行 1卷		金光明經略意 1卷
	涅槃經宗要 2卷 후 1卷		彌勒經述贊 3卷
	法華經宗要 1卷		彌勒經逐義述文 4卷
	法華經方便品料簡 1卷		藥師經疏 1卷
	楞伽經宗要 7卷		四分律-i磨記疏 1卷
	楞伽經宗要 1卷		大乘起信論問答 1卷
	維摩經宗要 1卷		成唯識論貶量 25卷
	金光明經疏 8卷		瑜伽論疏 10卷
	金剛般若經疏 3卷		俱舍論 3卷
	般若心經疏 1卷	玄一	大涅槃經料簡 1卷
	金剛三昧經論 6卷 후 3卷		法華經疏 8卷
	勝鬘經疏 2卷		小阿彌陀經疏 1卷
	不增不減經疏 1卷		瑜伽論疏 17卷
	般若三昧經疏 1卷		中邊論料簡 1卷
	解深密經疏 3卷	順懷	法華經料簡 1卷
	大無量壽經疏 1卷	悟眞	成唯識論義苑 3卷
	小阿彌陀經疏 1卷		因明論備闕略 2卷
	彌勒上生經宗要 1卷		法苑義林集玄 3卷
	方廣經疏 1卷	知通	華嚴經要義問答 2卷
	梵網經疏 2卷	道身	華嚴經一乘問答 2卷
	梵網經略疏 1卷	義寂	大涅槃經綱目 2卷
	持犯 1卷(十重戒序附)		法華經綱目 1卷
	瓔珞本業經疏 3卷		般若理趣分經幽贊 1卷
	大乘起信論宗要 2卷		觀無量壽經綱要 1卷
	大乘起信論宗要 1卷		彌勒上生經料簡 1卷
	大乘起信論別記 1卷		梵網經疏 2卷
	大乘起信論大記 1권		百法論總述 3卷
	大乘起信論料簡 1卷		百法論注 1卷

저자	서명	저자	서명
元曉	成唯識論宗要 1卷	太賢	正理門論古述記 1卷
	因明論疏 1卷		瑜伽論古述記 4卷
	判比量論 1卷		五蘊論古述記 1卷
	攝大乘論世親釋論略記 4卷		顯揚論古述記 2或1卷
遁倫	法華經疏 3卷		攝大乘論世親釋論古述記 1卷
	維摩經料簡 1卷		攝大乘論無性釋論疎古述記 1卷
	金光明經略記 1卷		雜集論古述記 4卷
	勝鬘經疏 2卷		中邊論古述記 1卷
	金剛三昧經注 4卷		唯識二十論古述記 1卷
	小阿彌陀經疏 1卷		成業論古述記 1卷
	藥師經疏 1卷		觀所緣論古述記 1卷
	成唯識論要決 2卷		掌珍論古述記 1卷
	瑜伽論疏 24卷		廣百論古述記 1卷
	雜記 9卷		法苑義林釋名章 2卷或 1卷
緣起	華嚴經開宗決疑 30卷		法苑義林大乘心路章 2卷
	華嚴經要決 12卷 후 6卷		廣釋本母頌 3卷
	華嚴經眞流還源樂圖疏 1		大乘一味章 1卷
	大乘起信論珠網 3 후 4卷		般若心經古述記 1卷
	大乘起信論捨繁取妙 1卷		觀無量壽經古述記 1卷
太賢	大華嚴經古述記 10或5卷		大無量壽經古述記 1卷
	大涅槃經古述記 8或4卷		小阿彌陀經古述記 1卷
	法華經古述記 4卷		稱讚淨土經古述記 1卷
	金光明經述記 4卷		彌勒上生經古述記 1卷
	金光明經料簡 1卷		彌勒下生經古述記 1卷
	仁王經古述記 1卷		彌勒成佛經古述記 1卷
	金剛般若經古述記 1卷		藥師經古述記 1卷
	金剛般若經古述記 1卷(解唐三藏新譯)		梵網經古述記 2卷
	般若理趣分經注 2卷		梵網經宗要 1卷
	因明論古述記 1卷		大乘起信論古述記 1卷

저자	서명	저자	서명
太賢	成唯識論古述記 10卷	義融	華嚴經釋名章 1卷
	成唯識論決擇 1卷	惠景	瑜伽論疎 20卷
道證	般若理趣分經疏 1卷		瑜伽論文迹 1卷
	成唯識論綱要 13卷	明晶	華嚴經海印三昧論1卷
	攝大乘論世親論疏 16卷 혹 8卷	極太	涅槃經義集 7卷
勝莊	梵網經述記 3卷		瑜伽論羽足 5卷
可歸	華嚴經義綱 1卷		毘婆沙論抄 10卷
惠雲	法華經料簡 1卷		順正理論抄 2卷
	彌勒下生經科 1卷	崔致遠	賢首碑 1卷
	彌勒下生經大科 1卷		賢首傳 1卷
宗一	華嚴經疏20卷(本19卷)		浮石尊者傳 1卷
端目	梵網經記 1卷	諦觀	四教儀 1卷
梵如	華嚴經要決 6 或 3卷		

상기표에서 보듯이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학승은 원효, 태현, 경홍, 의적, 도륜 등임을 알 수 있다.

원효(617-687)는 7세기 중엽 형식적인 불교의 제율을 타파하고 독특한 신라불교의 종지를 세웠다. 이것이 이른바 ‘해동종’이다. 그는 노비출신인 승려 혜공과 당시 학승으로 알려진 량지와 상종하면서 전생애를 경전 주소에 바쳤는데 그가 집필한 주소경적만해도 99부 240여권에 달한다. 의천의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것만해도 45종 (83)권이다. 현전하고 있는 전적으로는 <표 2>에 보듯이 「대해도경종요」 1권, 「금강삼매경」3권, 「화엄경소」 10권, 「무량수경종요」1권, 「법강경보살계사기」 2권, 「발심수행장」1권, 「대승기신론」 2권, 「십문화쟁론」 2권, 「기신론별기」 2권 등 23종이 전해지고 있다. 또한 15세기에 편찬된 「동문선」에 「금강삼매경론」 서문, 「영각본업경소」서문, 「화엄경소」서문, 「열반경종요」서문, 「화엄경종요」서문 6편이 전한다.

의상은 당의 현수와같이 지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불서에 능통하였다. 당시 현수는 지엄의 설법과 불경의 주소를 달아 승전편으로 의상에게 전하여

주기도 하였다. 즉, 승전법사(勝詮法師)가 효소왕 원년(孝昭王 元年: 唐 武則天長壽 元年, 692)에 당으로 부터 귀국할 때에 당 현수국사(賢首國師)가 편찬한 화엄경에 관한 책들은 그의 동문인 의상대사에게 전달하도록 부탁한 것을 승전법사가 베껴서 귀국하였는데, 그에 관한 책들은 「삼국유사」 승전축루에 상세히 실려있다. 그 기록을 보면,

“승 승전은 그 내력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일찌기 배불 타고 중국에 가서 현수국사의 강석(講席)에 나아가 현언(玄言: 佛法)을 받아 정미한 것을 연구하여 생각을 쌓고, 보는 것이 슬기롭스 뛰어나 깊은 것과 숨은 것을 찾아 그 묘함이 심오함을 다하였다. 이에 그는 인연있는 곳으로 가고자하여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을 가졌다. 처음에 현수는 의상과 함께 배워 지엄화상의 사랑스런 가르침을 받았다. 현수는 스승의 말씀에 대하여 글뜻과 과목을 연술하여, 승전법사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기회로 이 글을 보내니 의상도 역시 글을 보냈다 한다. 그 별폭(別幅)에는 이렇게 말했다.” 탐현기 20권⁸³⁾, 교본기 3권⁸⁴⁾, 현의장등잡의 1권, 화엄범어 1권, 기신소 2권, 십이문소 1권, 법계무차별론소 1권을 모두 옮겨 베겼으니 승전법사편에 보내드립니다. 저번에 신라의 중 효충이 금 구문을 갖다 주면서 상인(上人: 義湘)이 보낸것이라 하오니, 비록 편지는 받지 못했지만 고맙기 그지 없습니다. 지금 서국(西國)의 군지조관⁸⁵⁾ 한개를 보내어 적은 정성을 표하오니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승전법사는 돌아오자 이 현수의 글을 의상에게 전했다. 의상은 법상의 이글을 보니 마치 智儼의 가르침을 친히 듣는 것과 같았다. 수십일 동안 탐색하고 연구하여 제자들에게 주어 이 글을 널리 연술(演述)시켰으니, 이 말은 의상의 전기에 실려있다.

생각컨대 원활하게 융통하는 가르침이 청구(우리나라)에 널리 퍼진 것은 실로 승전법사의 공이다. 그 후에 중 범수가 멀리 당나라에 가서 새로 번역한 「후분화엄경」 「판사의소」⁸⁶⁾를 구해가지고 돌아와 연술했다고 하니, 이 때는 정원 기묘년

83) 探玄記는 唐 法藏 撰으로 「釋華嚴經探玄記」를 말함. 東晉의 佛跋跋陀羅가 번역한 「華嚴經」을 해석한 것이다.

84) 「教分記」는 「釋華嚴教分記圓通抄」라고 한다.

85) 軍持는 梵語로서 중이 가지고 다니는 물병. 灌은 대야를 말함.

86) 天台宗에서는 「華嚴經」을 넷으로 나누는데, 석가모니가 道를 연후 三七일 동안의 說法을 前分華嚴이라 하고 三七이후를 後分華嚴이라고 한다. 「觀師義疏」는 「觀解義疏」인 듯함.

(貞元 己卯年; 799)이었다. 이도 역시 불법을 구해 널리 들날린 사람이라 하겠다.

승전은 상주 관내의 개령군 경계에 절을 새로 짓고 돌들을 관속으로 삼아 「화엄경」을 개강했다. 그 뒤에 신라 중 가귀(可歸)가 대단히 총명하고 도리를 알아서 전등을 계승하여 이에 「심원장」을 편찬하였으니, 그 대략을 보면 이러하다. 승전 법사는 돌의 무리들을 거느리고 불경을 논의하고 강연했다고 하니, 그곳은 지금의 갈항사(葛項寺)⁸⁷⁾이다. 그 돌 80여개는 지금까지 강사(綱司)가 전하고 있는데 자못 신령스럽고 이상한 것이 있다. 그밖의 사적들은 모두 비문에 자세히 실려 있는데, 「대각국사실록」속에 있는 것과 같다.”⁸⁸⁾

상기 글에서 의상에게 전해진 책들은 당 현수(賢首)가 편찬한 것으로 探玄記 20卷, 教分記 3卷, 玄義章等雜義 1卷, 華嚴梵語 1卷, 起信疏 2卷, 十二門疏 1卷, 法界無差別論疏 1卷 등 7종임을 알 수 있다. 이중 注疏를 붙인 것은 「起信疏」 「十二門疏」 「法界無差別論疏」 3종이다.

의상은 29세에 중이되어 중국 종남산(終南山) 지상사(至相寺)에 가서 지엄(智嚴)⁸⁹⁾을 만나 수학하여 「화엄경」을 해석하고, 咸亨 元年 庚午(670)에 본국으로 돌아왔다. 儀鳳 元年(唐 高宗의 연호, 新羅 文武王 16, 676)에 태백산으로 들어가 부석사(浮石寺)를 세우고 불법을 연구하였다. 당시 唐에서 수

87) 葛項寺는 慶北 金陵郡 南面 金烏山 서쪽에 있던 절.

88) 「三國遺史」 卷 第4 勝詮觸階條 “釋勝詮, 未詳其所自也, 常附舶指中國, 詣賢首國師講下, 領受玄旨, 研微積慮, 惠鑿超類, 探頤索隱, 妙靈隅奧, 思慙赴愬有緣, 當還國里, 始賢首與義湘同學, 俱稟儼和尚慈訓, 首就於師說, 演述義科, 因詮法師還鄉寄示, 湘仍奇書(云云), 別幅云, 探玄記 二十卷·教分記 三卷·玄義章等雜義 一卷·華嚴梵語 一卷·起信疏 二卷·十二門疏 一卷·法界無差別論疏 一卷, 并因勝詮法師抄寫還鄉. 頃新羅僧孝忠遺金九分, 云是上人所寄, 雖不得書, 頂荷無盡, 今附西國軍持澡濯一口, 用表微誠, 幸顯檢領, 謹宣, 師既還, 寄信于義湘, 湘乃目閱藏文, 如耳聆儼訓, 探討數旬, 而授門弟子, 廣演斯文, 語在湘傳. 按此圓融之教誨, 遍洽于青丘者, 寔師之功也. 厥後有僧梵修, 遠適彼國, 求得新譯 「後分華嚴經」 「觀師義疏」, 言還流演. 時唐貞元己卯, 斯亦求法洪揚之流乎, 詮乃於尚州領內開寧郡境, 開創精廬, 以石觸體爲官屬, 開講華嚴, 新羅沙門可歸, 頗聰明識道理, 有傳燈之續, 乃撰「心源章」其略云, 勝詮法師領石徒衆, 論議講演, 今葛頃(項)寺也. 其觸體八十餘枚, 至今爲綱(綱)司所傳, 頗有靈異. 其他事迹具載碑文, 如大覺國師實錄中.”

89) 唐代의 高僧으로 華嚴宗의 第2祖, 終南山 至相寺에서 華嚴宗을 드날렸기 때문에 至相大師라고도 함.

학하던 동문인 현수⁹⁰⁾가 「搜玄疏」⁹¹⁾를 지어 부분(副本)과 편지를 의상에게 보냈다. 그 편지 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경 승복사 중 법장은 해동 신라 화엄법사의 시자(侍者)에게 글을 올립니다. 한번 작별한지 20여년이 되니 사모하는 정성이 어찌 마음속에서 떠나겠습니까. 게다가 연기와 구름이 1만리나 되고 바다와 육지가 1천점이나 쌓였으니 이 몸이 다시 뾰지 못하는 것을 한스럽게 여기며, 회포의 그리움을 어찌 다 말하오리까. 전생에 인연을 같이 맺고 금세에 학업을 같이 닦았기 때문에 이 과보(果報)를 얻어서 함께 대경(華嚴經)을 익히고, 선사의 특별한 은혜로 깊은 경전의 가르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우러러 듣건대, 상인께서는 고향에 돌아가신 후로 「화엄경」을 강연해서 법계에 무한한 연기(緣起: 因緣生起)를 드날려, 점점의 제망(帝網)⁹²⁾으로 불국을 새롭게 하여 중생에게 이익을 주심이 크고 넓다 하오니 기쁜 마음이 더해 집니다. 이것으로써 如來가 돌아가신 후 불교를 빛내고 법륜을 다시 굴러 불법을 오래 머물게 한 분은 오직 법사뿐임을 알겠습니다. 법장은 앞으로 나가는 것이 하나도 이루어 놓은 것이 없고 주선하는 일이 더욱 적사오니, 우러러 이 經典을 생 각하매 선사께 부끄러울 뿐입니다. 오직 분수에 따라 받은 바를 잠시도 놓칠 수 없으니 이 業에 의지하여 래세의 인연을 맺기를 원할 뿐입니다. 다만 스님의 장소(章疎)는 뜻은 풍부하지만 글이 간결하여 후세 사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의 깊은 말씀과 미묘한 뜻을 기록하여 「義記」를 이루었습니다. 요새 이것을 승전법사⁹³⁾가 베껴가지고 고향에 돌아가 그 지방에 전할 것입니다. 하오니 상인께서는 그 잘잘못을 자세히 검토하셔서 가르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드려 바라옵건대 마땅히 來世에서는 사신수신(捨身受身)하여 함께 노사나불(盧舍那佛)의 이와 같은 끝이 없는 묘법을 듣고, 이와 같은 무량한 보현보살의 원행(願行)을 수행한다면 나의 남은 악업(惡業)은 하루아침에 떨어질 것입니다. 바라건대 상인께서는 옛날의 일을 잊지마시고 제취(諸趣) 중에서 정도로써 가르쳐 주십시오. 인편이 있으면 때때로 안부를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만 갖

90) 唐代의 高僧으로 華嚴宗의 第3祖로 이름은 法藏. 智儼에게서 義湘과 함께 華嚴宗을 배움.

91) 探玄記 二十卷을 말함.

92) 帝釋天의 寶網. 즉 法界의 無盡緣起를 말함.

93) 新羅高僧으로 당나라에 들어가 賢首의 講席에서 華嚴經을 연구하고 돌아 올 때 賢首의 「華嚴草疏」와 그 밖의 여러 글을 가지고 와서 義湘에게 전함.

추지 못합니다. “(이 글은 「大文類」에 실려 있다.)⁹⁴⁾

상기 글중 “다만 스님의 장소(章疏)는 뜻은 풍부하지만 글이 간결하여 후세사람으로는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님의 깊은 말씀과 미묘한 뜻을 기록하여 「의기義記」를 이루었습니다.”라는 문장을 보면, 당시 의상과 같이 수학하면서 지엄스님의 장소와 말씀을 쉽게 풀이하여 편찬한 것이 「의기義記」라고 했는데 이는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를 가르킨 것으로 보인다.

의상의 저서로는 <표1>에서 보듯이 「일승법계도—乘法界圖」 1권, 「십문간법관十門看法觀」 1권, 「입법계품초기入法界品 記」 1권, 「아미경의기阿彌經義記」(小阿彌陀經義記) 1권 등 4종이 기록되어 있지만, 「백화도장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 1편을 합하면 5종이 된다. 이중 「일승법계도」 1권과 「백화도장발원문」 1편이 현전하고 있다. 또한 의상의 제자로 오신(悟眞), 지통(智通), 표훈(表訓), 진정(眞定), 진장(眞藏), 도용(道融), 양원(良圓), 상원(相源), 능인(能仁), 의적(義寂) 등 10명으로 이들은 모두 전기(傳記)가 있으며, 이 들중 지통은 「추동기錫洞記」를 저술하였다.⁹⁵⁾ 그밖에 신라에는 유명한 학승들이 많다. 즉 圓光·寶瓊·良志·知明·慈藏·圓藏·元曉·圓測·太賢·智仁·靈因·行達·順璟·道證·勝莊·玄一·道身·表員·明晶·慧超·不可思議·緣起·大衍·見登·月忠·眞嵩·義融·淨達·審祥·可歸(勝詮의 제자로 「心源

94) 三國遺事 卷第4 義湘傳教 “西京崇福寺僧法藏，致書於海東新羅華嚴法師侍者，一從分別二十餘年，傾望之誠，豈離心首。加以烟雲萬里，海陸千重。恨此一身不復再面。抱懷戀戀。夫何可言。故由夙世同因，今生同業。得於此報。俱沐大經。特蒙先師授茲奧典。仰承上人歸鄉之後，開演華嚴。宣揚法界，無導緣起。重重帝網。新新佛國。利益弘廣。喜躍增深。是知如來滅後。光輝佛日。再轉法輪。令法求住者。其唯法師矣。藏進趣無成。周旋寡況。仰念茲典。愧荷先師。隨分受持。不能捨離。希憑此業。用結來因。但以和尚章疏，義豐文簡。致令後人多難趣入。是以錄和尚微言妙旨。勒成義記。近因勝詮法師，抄寫還鄉。傳之彼土。請上人詳檢藏否。幸示箴誨。伏願當當來世，捨身受身。相與同於盧舍那。聽受如此無盡妙法。修行如此無量普賢願行。餘惡業。一朝顛墮。伏希上人不遺宿昔。在諸趣中。示以正道。人信之次。時訪存沒。不具(文載大文類)

95) 三國遺事 卷第4 義湘傳教.

章)을 편찬하였다.) 順之·端日·大悲·法融 등이 있다. 이들중 각각의 저술들이 많지만 현전하고 있는 것은 극소수다. 원광·지명·자장·원장의 저술은 서명만 전하고 있는 반면에 원측·원효·의상·태현 등은 많은 저술들이 전하고 있다.

圓測의 저술중 「불설만야바라밀다십경찬」 1권, 「인왕경소」 6권, 「해심밀경소」 10권이 현재까지 전하고 있으며, 이들을 표로 나타내면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註疏의 저술로 원측의 작품이 3종, 신방의 작품 1종, 원효의 작품이 23종, 의상 2종 등 54종 이상이 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밖에도 고려 선종 11년(日本 堀河主 寬治 8년, 1094)에 일본 永超가 編述한 「東域傳燈目錄」 중에 新羅 高僧들이 疏鈔한 異本들이 原典과 함께 실려 있다고 한다.⁹⁶⁾

이와같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불서도입은 물론 중국이나 인도로 유학하여 법어를 배워 직접 번역서를 저술하기도 하고 한적(漢籍)에 주 소를 달아 많은 경전주소 관계서적을 저술하였다. 당시 경전들은 대개 필사승들에 의하여 필사되거나 목판으로 인쇄되어 전하다가 수많은 전란과 화재로 인하여 사찰이 침탈되는 등 현전하고 있는 전적도 극소수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전주소(經典註疏)작업은 곧 불교문화 뿐만아니라 인쇄술 및 서지학발전에 토대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96) 金斗鐘. 韓國古印刷技術史. p. 43

〈丑 2〉 現存佛經註疏本

著者	書名	著者	書名
圓測	佛說般若波羅蜜多心經贊 1卷	法位	無量壽經義疏〈復元〉 2卷
圓測	仁王經疏 6卷	瓊興	無量壽經連義述文贊 3卷
圓測	解深蜜經疏 10卷	瓊興	三彌勒經疏 1卷
神昉	大乘大集地藏十輪經序	勝莊	網經述記 4卷
元曉	大慈度經宗要 1卷	勝莊	金光明最勝王經疏〈輯逸〉 1卷
元曉	法華宗要 1卷	玄一	無量壽經記卷上〈殘卷〉 1卷
元曉	華嚴經疏卷3 并序 1卷	義寂	菩薩戒本疏 并重刻序 3卷
元曉	本業經疏下 并序 1卷	義寂	法華經論述記卷上〈殘卷〉 1卷
元曉	涅槃宗要 1卷	義寂	無量壽經述義記〈復元〉 3卷
元曉	彌勒上生經宗要 1卷	表貝	華嚴經文義要決問答 4卷
元曉	解深蜜經疏序	明晶	海印三昧論 1卷
元曉	無量壽經宗要 1卷	通倫	瑜伽論記 48卷
元曉	佛說阿彌陀經疏 1卷	慧超	往五天竺國傳 1卷
元曉	遊心安樂道 1卷	慧超	大乘瑜伽金剛性海曼殊室利千臂千鉢大教王經序 1篇
元曉	菩薩戒本持犯要記 1卷		
元曉	梵網經菩薩戒本私記卷上 1卷	慧超	賀玉女潭祈雨表 1篇
元曉	金剛三昧經論 3卷	不可思議	大毘盧遮那經供養次第法疏 2卷
元曉	大乘起信論別記 2卷		
元曉	起信論海東疏 并刊行序 2卷	太賢	本願藥師經古迹 2卷
元曉	大乘起信論疏記會本 6卷	太賢	梵網經古迹記 4卷
元曉	二障義 1卷	太賢	菩薩戒本宗要 并序 1卷
元曉	判比量論〈斷簡〉	太賢	成唯識論學記〈菩薩藏阿毘達摩古迹記〉 6卷
元曉	中邊分別論疏卷3 1卷		
元曉	十門和諍論〈斷簡〉	太賢	大乘起信論內義略探記 1卷
元曉	發心修行章 1卷	見等之	大乘起信論同異略記 2卷
元曉	大乘六情懺悔 1卷	見等之	華嚴一乘成佛妙義 1卷
元曉	彌陀證性偈 1篇	順之	祖堂集所載順之和尙說 3篇
義湘	華嚴一乘法界圖 1卷	崔致遠	唐大薦福寺故土繡經大德法藏和尙傳 并碑傳 及碑 1卷
義湘	白花道場發願文〈斷簡〉		

5. 結 言

본고는 삼국시대의 서지문화를 조사하고 그 서지문화를 통하여 당시 서지학발전의 상황을 고찰하여 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고구려의 서지문화는 동명왕 원년(B.C. 37년)부터 문자가 일반화 되면서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태학, 경당을 세워 교재로 유가서를 사용했으며, 역사서로는 「유기」 100권, 이문진의 「신집」 5권을 편찬 하였다.

외국과도 서적의 교류에 있어서는 가장 활발하여 오경, 삼사, 삼국지, 진양추(晉陽秋) 손성진춘추(孫盛晉春秋) 옥편 자통(字統) 자림(字林) 문선 등이 교류되었다. 유가서 외에도 불교의 진흥을 위해 중국과 많은 교류를 가졌고, 소수림왕 때는 전진왕 부견이 승 순도와 함께 불상과 불서를 가져오기도 하고, 고국양왕 때는 동진의 승 담시가 경(經), 율(律) 수십부를 가지고 고구려 영토인 요동으로 가서 널리 선화하였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실이다. 그리고 평원왕 때는 랑태사 양나라에 들어가 용수보살의 저술인 중론(中論) 및 12론과 그의 제자 提婆의 저술인 백론(百論) 등의 삼론(三論)과 또는 화엄경들을 연구하고 삼론종을 개설하였으며, 「중론소」를 저술하기도 하였다. 또한 고구려는 일본에까지 불서, 유가서 등을 전했으며, 유가나 불교의 서적외에도 연개소문의 건의로 노자의 「도덕경」을 입수하게 되었다. 한때 불교계의 반발도 있었지만 유가서와 불서 도교서들을 수입 저술하여 당시의 문화발전에 크나큰 터전이 된 것이다. 고구려의 의서로는 내외전(內外典), 노사방, 지리서로는 명당도(明堂圖) 등이 있었다고하나 자세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따라서 고구려는 지역적으로 중국과 밀접한 관계였으므로 외국의 문물을 백제, 신라보다 가장 먼저 받아 들였음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전해진 서적이 하나도 없음은 대내외적인 전란으로 인해 모두 소멸되었거나 아니면 삼국통일이후 신라의 문화에 기초자료가 되어 흡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백제의 서적문화는 고구려, 신라보다는 활발하지는 못했지만 일본의 문화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었다는 점에서 궁지와 자부심을 갖게 한다.

역사서로는 「서기」 「백제기」 「백제본기」 「백제신찬」 등이며, 중국에서 입수한 유가서로는 역경, 효경, 논어, 산해경, 천자문, 오경, 자사 등이며, 불경으로는 오부율문(五部律文), 열반경, 경론(經論) 등을 입수하게 되었다. 그러나 백제는 이러한 서적을 다시 일본까지 전파하여 일본문화에 초석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백제는 불경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율부 72권을 번역하고, 율소 36권을 저술하여 성왕이 손수 비담신율서(毘曇新律序)를 써서 목판인쇄를 시도하려고 하였다는 것은 인쇄사 및 서지사에 중요한 단서가 된다 하겠다.

신라는 초기에는 외부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통일 이후 급속도로 서지문화가 발전하게 되었다. 역사서로 「국사」를 집필하고, 신문왕 2년(682)에는 국학을 설립하여 교육과목으로 주역 상서 모시 예기 춘추좌씨전 문선 논어 효경 등을 삼았고, 원성왕 4년(788)에는 독서삼품과를 두어 과목으로는 춘추좌씨전 예기 문선 논어 효경 곡례 오경 삼사 및 제자백가서 산학 등을 두어 유학을 발전시켰던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김대문, 최치원 등의 저술이 많이 나오게 되었다. 불서가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법흥왕 때부터 본격화 되었다. 진흥왕 때는 진으로 부터 사신 유사(劉思)와 승 명관(明觀)을 보내 석씨경, 론 1700여권을 입수하기도 하였으며, 안흥법사가 수나라에 들어가 호승(胡僧) 비마라(毗摩羅) 등 두 승려가 능가승만경(稜伽勝鬘經)을 가져오기도 하였고, 또한 많은 학생들을 배출하여 주·소의 작품 54종 이상이 현재까지 전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삼국의 서지문화는 문자의 발명과 도입으로 인하여 본격화되기 시작하였다. 고조선의 문화를 발전시켰다고 하는 가림다문자설은 앞으로 연구의 과제로 삼더라도 문자의 사용으로 삼국의 서지문화가 빛을 보게 된 것이다. 더욱이 고구려가 국초에 유기 100권을 저술하였다는 것은 이미 그 이전부터 문자가 일반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삼국통일후 이두문자사용

과 한자를 우리말 어순으로 배열한 것등은 당시 현실에 맞도록 독창력을 발휘하여 국민들간에 커뮤니케이션을 원활하게 하고 한적의 독서력을 확대시켜 지식과 인격수양의 토대로 삼았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삼국시대 서지학의 발전에 가장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유·불·도의 수용이다. 유교의 수용으로 학교를 설립하고, 불교의 수용으로 사찰을 설립하고, 도교를 수용하여 도당을 세우는 것은 물론 많은 유학생과 유학승을 배출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유학생과 사절단을 통하여 서적을 수입하게 되었으며, 서적의 수입방법은 유학생들이 수업한 교재를 직접가지고 오는 방법과 국가적으로 사절단을 통하여 수입하는 방법, 그리고 돈을 주고 사오는 방법등 다양하였다. 당시 학승들은 중국이나 인도로 유학하여 한문과 범어를 배워 직접 번역서를 저술하기도 하고 한적(漢籍)에 주소물 달아 많은 경전주소 관계서적을 저술하였으며, 이러한 경전들은 대개 필사승들에 의하여 필사되거나 목판으로 인쇄되어 전하다가 수많은 전란과 화재로 인하여 불서의 도서관 역할을 한 사찰들이 불타는 등 현전하고 있는 전적도 소수에 불과하지만 당시의 경전주소(經典註疏)작업은 곧 불교문화 뿐만아니라 인쇄술 및 서지학발전에 토대가 되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하겠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Bibliography in the Sam-Kug Period

Joong-Kwon Kim*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the development of bibliography in the Sam-Kug Period.

In the Sam-Kug Period, Bibliographic civilization was due to be invented the character. The invention of script was the revolution in communication and education. It is the accepta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to be influenced by the Bibliography's development in this period. So it has produced a large number of student studying abroad and mission. And they were able to collect lots of books in China. It was various the way that they collected the materials. During one's stay in China as a student, they asked them give the books, or bought it at government expense. Their primary responsibility was to study and collect the classical canon, the Buddhist Sutras etc. Majority of the collected materials were classical canon and the Buddhist Sutras. And it was first copied by calligrapher and printed with the wood-block. Example, Dharani Sutra was found in the second story of Sokkatap pagoda of Pulguksa

* Full-time instructor, Dep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Kwangju Univ.

Temple in 1966. It was put inside the Pagoda when it was built in 751(in the 10th year of king Kyong-Duk). This is the worldwide cultural property of which we are proud. The collected books were annotated by learned priests and confucian scholars. An annotation of the sacred books were based on the Buddhist civilization, the art of printing and the development of bibliography.

But we are unhappy that it was reduced to ashes lots of the templs and the materials by the effect of war or fire.